

동계 정온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강동호**, 양진건***

《요약》

조선시대 지방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제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유배인들의 기록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유배인이자 제주오현(濟州五賢)으로 추앙받고 있는 동계 정온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동계는 10년 동안의 제주유배생활동안 280여제의 한시를 남긴다. 동계의 문학관은 문이재도론적(文以載道論的) 관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가 남긴 280여제의 한시들은 대부분 그의 생각·사상·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동계의 학문태도와 선비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계의 제주유배한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은 지경(持敬)의 태도를 견지하여 끊임없이 수기(修己) 하였던 모습, 학문에 침잠(沈潛)하고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였던 모습, 사우(四友)를 통해 자기반성과 지조·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모습 등이었다.

조선조 참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계의 이러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은 그가 왜 제주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제주의 굴림서원(楡林書院) 그리고 송죽서원(松竹書院)에 배향되어 오랫동안 제주교육의 사표로서 숭모(崇慕)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주제어】 동계 정온, 제주유배한시, 굴림서원, 제주오현, 선비정신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2015. 8.28~29) 자유주제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1저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동계(桐溪) 정은(鄭蘊)은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의리와 지조를 지킨 선비였으며, 특히 삼학사(三學士)·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척화파(斥和派)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 임진왜란(1592) 이후 영·정조 직전까지의 조선중기는 굳건했던 주자학적 질서체계에 내부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며 당쟁(黨爭)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다. 세력이 강해진 북인은 광해군을 추대하였으나 사회적·정치적 혼란은 오히려 절정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사대부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배척을 당해 절해고도로 유배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동계 역시 이 시기에 제주에 유배된 지식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정인홍(鄭仁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대북파(大北派)에 속하는 사람이었으나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폐위, 살해됨에 그 부당함을 상소하다가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 10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도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된 출륙억제정책(出陸抑制政策)과 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상황 등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제주인들의 교육적 열의는 어느 지역 못지않았고 유림들의 교육적 갈증은 상당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가장 큰 줄기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이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약 270여명의 유배인들이 내도하였다. 제주도에는 신분계층에 상관없이 유배인들이 왔지만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사대부 지식인들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제주유배 원인 대부분은 사대부들의 정치적 갈등인 당쟁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대부분 학자관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유배를 당하면 정치적 역할은 단절된 대신에 오히려 학자적 역할은 부각되었다. 그들이 오랜 유배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그런 학자적 역할 때문이었다.

제주도의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서 유배인들의 내도(來島)는 특별한 교육적 자극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학파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큰 스승이 없었던 상황에서 유배인들은 학파에 상관없이 큰 스승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때문에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에서 유배인들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그들의 남긴 기록 역시 매우 소중한 교육적 자료들이다.

유배인들의 제주교육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활발했다. 죄인의 신분임에도 학문을 탐구하여 제주유림의 모범이 되는가 하면, 직접 제자를 가르친 유배인들도 매우 많았다. 동계 역시 그런 유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동계가 제주 유림들을 직접 가르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동계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가 후일 제주 유일의 사액(賜額)서원인 제주 굴림서원(橋林書院)에 제주오현(濟州五賢)으로 배향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동안 동계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이 있었다.¹⁾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계가 제주유배생활동안 지은 한시라는 텍스트를 통해 동계의 제주유배생활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것은 일상적 제주유배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한시를 통해 그의 학문탐구의 자세와 선비정신을 고찰하여 그가 왜 제주오현으로 배향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있어 한시는 단지 심미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문학(文學)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사상을 표현한 또 하나의 전달수단이었다. 따라서 동계의 제주유배한시에 투영된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동계의 학문사상 및 그의 선비정신을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동계의 문집인 『동계집(桐溪集)²⁾』에는 많은 한시가 남아 있다. 그 중 제주 유배시기의 한시가 절반을 넘는 분량을 차지한다. 그만큼 동계는 10년간의 위리안치(圍籬安置)동안에 한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그리고 동계의 한시에 대해 연구자들은 제주유배시기의 작품이 가장 주목된다고 밝히고 있다.³⁾ 그러나 동계의 한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문학적 연구였으며⁴⁾ 보편적인 유배문학의 범주에

1) 양진건(1988),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양진건(2010), 「桐溪 鄭蘊 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 본고에 나오는 동계의 시(詩)와 문(文)의 번역은 『신편 국역 동계 정은 문집 1~4』(민족문화추진회 편, 2006)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3) 여운필(2005), 「桐溪 鄭蘊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p.33.

4) 고은순(2015), 「桐溪 鄭蘊의 歷史認識과 詩世界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우(1986),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속하는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유배한시에서 드러나는 문학적인 논의 보다는 교육적인 의미를 밝혀봄으로써 교육자적 사표(師表)로서 동계정온의 제주 유배 시기의 족적과 면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계 정온의 생애와 제주유배

1. 생애

정온의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동계이다. 1569년(선조2년) 안음현 역동(현재의 경남 거창군)에서 역양공 정유명(鄭惟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친에게 글공부를 익혔으며, 약관에 이르러 월천(月川) 조목(趙穆)과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문하에서 두루 유학하였으며 정인홍의 문인(門人)이 되면서부터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학맥을 잇게 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사서·정언 등을 역임하였고, 1614년 부사직으로 재임하던 중 영창대군의 처형이 부당함을 상소하였고, 가해자인 강화부사 정항(鄭沆)의 참수를 주장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 대정에서 10년간 위리안치 유배생활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석방되어 헌납에 등용되었다. 이어 사간·이조참의·대사간·경상도관찰사·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다. 결국 청나라에 굴복하는 화의가 이루어지자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죽지는 않았다.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경남 거창군 북상면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5년 후에 죽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광주(廣州)의 현절사(顯節祠), 제주의 굴림서원,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에 제향되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은거했던 곳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 모리재(某里齋)가 있으며, 문집에 『동계문집』이 있다.

부영근(2006),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동아인문학』 10호. 동아인문학회.

정시열(2008),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정시열(2011),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 孤立無援의 絶域에서 구현한 儒家之教의 表象」, 『한국고전연구』 2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정영식(2010), 「桐溪 鄭蘊의 文學世界-直道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동계의 학통과 사상

동계는 남명 조식을 사사(師事)했던 내암(來庵) 정인홍의 제자였다. 따라서 동계는 남명 → 내암 → 동계로 이어지는 남명학파의 지식인이다. 동계가 공부에 입문했을 때, 경상우도의 학문적 분위기는 남명의 제자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정인홍의 성망(聲望)이 가장 대단하였다. 정인홍은 남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동계가 언제 처음 정인홍을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정인홍의 문하에 들어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남명 학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경의지학(敬義之學), 실천 위주의 학문, 절의(節義) 숭상 등을 정인홍을 통해서 계승했을 것이다.⁵⁾

남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퇴계를 위시한 당대의 대부분의 학자들과는 달리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한편,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지녔다는 점이다.⁶⁾ 이러한 남명의 사상은 정인홍을 거쳐 동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동계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는 의리와 소신의 언관 활동, 강상윤리(綱常倫理) 회복 노력, 그리고 의(義)를 투철하게 실천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계는 경상우도의 대부분 학자와는 달리 경상좌도의 퇴계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사사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월천 조목과 한강 정구이다. 월천은 퇴계의 적통을 이었고 한강은 남명과 퇴계 모두를 섬겨 양학파의 조화를 이루었다.⁷⁾ 동계는 한강보다는 적극적으로 월천을 사사함으로써, 동계의 학문은 남명의 영향권 안에만 안주하지 않고 퇴계의 학맥을 함께 계승할 수 있었다. 이는 동계가 남명학파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학자들보다 더 우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었다.⁸⁾

3. 제주유배와 생활

5) 민족문화추진회(2006), 『국역 동계 정은 문집 1』, 「해제(허권수)」, p.10.

6) 이상필(2005),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p.73.

7) 송희준(2014), 「桐溪 鄭蘊의 학통과 학문사상」, 『嶺南學』 제26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75.

8)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11.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생활은 그가 남긴 문집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 동계 정은의 교육적 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동계가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영창대군 문제였다. 그는 계축옥사(癸丑獄事)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영창대군의 살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고 결국 살해되자 이에 「갑인봉사(甲寅奉事)」를 올려 영창대군을 살해한 강화부사 정항의 목을 벨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영창이란 호를 추급하여 회복시키고 대군(大君)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상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삼사가 삭탈하여 먼 데 있는 섬에다 안치시킬 것을 논하였으나 광해군이 오히려 그 벌이 가볍다고 노여워하였다. 결국 3월에 옥에 갇히고 6월에 광해군이 친히 국문하였으며, 가을에 재차 공초하여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 하라는 명이 내려졌다.⁹⁾

동계는 1614년 8월 2일 해남에서 아우와 이별하여 제주도 별도진(別刀津)에 도착¹⁰⁾함으로써 끝을 알 수 없는 제주도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 동계는 다른 유배인들처럼 갖은 질병과 풍토병 때문에 매우 고생하였다. 그의 여러 시와 편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는 좌절하지 않고 유배생활 동안 끊임없는 학문 수양에 몰두한다. 이 점이 제주유림에게는 가장 큰 교육적 모델링(modeling)이자 모범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동계는 일생동안 원칙과 의리를 자신의 신조로 삼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학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하였다. 제주유배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가 다른 유배인들과 달리 적거지(謫居地)를 벗어나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계가 받은 위리안치형은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圍籬), 가시덤불을 쌓고(加棘) 그 안에 유배인을 유폐시킴으로써 중연금 상태를 내외에 상징하는 조치였다. 이

9) 정은, 『桐溪集』 卷3, 疏, 「甲寅奉事」.

10) 정은, 『桐溪集』 續集 卷1, 書, 「寄昌詩」, “父往月十三日發船, 風勢順利 夜二更 到泊別刀津.”

11) 「병중에 애써 읊다(病中苦吟)」라는 시에서 “죄 많은 몸에 온갖 병이 찾아드니, 허한 속에 감기까지 앞서 날마다 야위어 가노라(萬死殘骸百病攻, 中虛外感日枯容).”라고 하였다. 『桐溪集』 卷1, 七言律詩, 「病中苦吟」.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는 가시울타리로 쓰였던 탕자나무의 서식지가 전라도 연안과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로 취해졌던 형벌이다.¹²⁾ 그러나 위리안치라고는 하지만 대개는 도망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배인의 행동범위를 실제 울타리 안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수령에게 있었던 까닭에 수령의 성격이나 재량에 따라 위리형(圍籬刑)은 대개 형식에 그치는 수가 많았다. 그러나 동계는 적거지 밖을 나간 흔적이 없다. 또한 『동계집』 연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섬으로 귀양 온 이후로 여름마다 더위를 먹었다. 가시나무로 둘러쳐진 집이 찌는 듯이 더운데 짧은 처마 아래 누워 하루 종일 땀을 닦았다. 배소의 울타리 서쪽 지척에 굴나무 숲이 있었는데, 아들 창훈이 잠시 자리를 옮겨 더위를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이 배소의 울타리 가운데 있으면서 한 걸음도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이 없자, 어떤 사람이 나무라기를, “김충암(金冲菴) 김정(金淨))이 귀양살이할 때는 매달 한 번씩 한라산(漢拏山)에 올랐는데, 공은 어찌 그리 용통성이 없는가?” 하니, 선생이 웃으며 답하기를, “사람의 소견은 각각 같지 않고 또 죄에는 경중이 있으니, 내가 충암을 배우지 않는 것은 바로 노(魯)나라의 흠아비가 유혜(柳惠)를 배우는 방도이다.” 하였다.¹³⁾」

이렇듯 동계 정은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고 죄인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직 선비로서의 도리를 지킴으로써 의(義)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이었다.

적막한 유배의 생활이었으나 유배지에서 동계를 모시던 측실(側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계의 넷째 아들 창근(昌謹)이 태어난 해는 동계가 53세이던 1621년으로 유배 도중이었기 때문이다. 아들 창근은 동계가 병자호란 시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호송할 때 수행하였다.¹⁴⁾ 동계는 말년에 다른 형제들에게 창근을 동복(同腹)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유언을 남길 만큼 애뜻하게 생각하였다.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내도하여 제주도 여자와 집안을 이루는 경우는 비교적 많았다. 대부분 유배인의 서자

12) 양진건(2010), 앞의 논문, p.133.

13) 정은, 『桐溪集』年譜, “二年壬戌 先生五十四歲 六月. 病暑 自入海 每夏爲患. 棘舍鬱蒸 臥短簷下 揮汗終日. 籬西咫尺有橋林. 子昌訓請暫移席避暑 終不許. 先生在圍中, 寸步不越籬限. 或譏之曰. 金冲菴 謫居, 每月一登漢拏, 公何太滯乎. 先生笑謝曰. 人之所見各不同 且罪有輕重 吾之不學冲菴 乃魯男學柳惠之道.”

14) 정은, 『桐溪集』年譜, “先生五十三歲, 十二月. 側室子昌謹生. 後陪先生 扈從南漢. 補副司果.”

(庶子) 들은 제주도에 남아 제주의 유배인 입도조(入島祖)를 형성 하였는데, 동계는 예외적으로 창근을 본가(本家)로 데리고 간 것이다. 창근의 외가가 제주의 어느 집안인지 알 수 없으나 창근을 매개로 동계와 제주의 인연은 더욱 깊게 형성되었다.¹⁵⁾

Ⅲ. 동계 정은 제주유배한시의 교육적 의미

1. 동계 정은의 문학과 제주유배한시

일반적으로 유학의 문학은 재도론(載道論)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관념적 철학이면서 아울러 현실적 명분론에 근거한 것이었다.¹⁶⁾ 동계 역시 이러한 문이재도론적(文以載道論的)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계는 문장(文章)이란 기본적으로 내면적인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온축(蘊蓄)이라는 질박하고 실질적인 경지에 그 연원을 두어야 한다는 문장관(文章觀)을 피력하였다. 이는 곧 동계가 ‘이러한 실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문장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주자의 관점을 수용하는 가운데, 문장을 기본적으로 ‘도를 담은 그릇’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계는 “붓을 잡고 먹을 희롱하여 새롭고 기발하게 표현하려고 힘쓰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하였다.¹⁷⁾

동계의 문학관은 그가 쓴 옥계(玉溪) 노선생(盧先生) 문집 서문(序文)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동방에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름 있는 분과 훌륭한 선비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마음 가는대로 쏟아낸 것이 이치를 밝힌 성현의 글과 같은 사람은 역시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오직 우리 옥계 선생의 글만이 거의 가깝다고 하겠다. 일찍이 들건대 주 부자(朱夫子)의 말에 “이러한 실상이 마음속에 있

15) 제주유배인이 제주 여인과의 혼사를 통해 집안을 이루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한 유배인의 후손들은 제주의 입도조로서 유배인의 학문이나 가풍을 가학(家學)을 통해 제주에 전수한다. 이러한 내용은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6) 노인숙(2002),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국학자료원, p.53 참조.

17) 정일균(2002), 『조선시대 거창지역(안음현)의 학통과 사상- 갈천 임훈과 동계 정은의 학문론을 중심으로』, 『동방학문학』, 동방학문학회, p.295.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으면 반드시 이러한 문장이 밖으로 드러난다.” 하였는데, 시험 삼아 이것을 가지고 선생의 글을 살펴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된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본다면, 대개 침잠하면서 돈후하고 순수하면서精明(精明)하여 조금이라도 가볍거나 뒤섞인 기운이 그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한 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공자(孔子)가 말한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이 있다.”, 정자(程子)가 말한 “이 말이 있으면 이 이치가 밝고, 이 말이 없으면 이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⁸⁾

위의 글에서 동계는 자신의 문학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자, 공자, 정자의 문학관을 인용하여 문학의 본질은 이치를 밝히는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동계의 문장관은 「정암 조 선생이 난초와 대나무에 대하여 쓴 절구 7수의 뒤에다 쓰다.」라는 서(序)에서도 확인된다.

「뒷날 이 그림을 보는 자가 난초를 난초로만 보지 말고 선생의 향기로운 덕을 생각하며, 대나무를 대나무로만 보지 말고 선생의 맑고 곧은 절의를 생각하며, 한갓 그 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며 자신을 수양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생각해서 얻은 것이 있게 된다면, 이 병풍이 세상의 교화에 도움 되는 것이 막중하지 않겠는가.¹⁹⁾

그런데 이러한 동계의 문학관은 그의 스승인 남명의 문학관과는 입장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것이 동계가 남명학 뿐만 아니라 퇴계학의 면모를 계승하는 모습이다.

남명은 시문을 지어 읊는 것은 완물상지(玩物喪志)의 해도(害道)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만심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여 수십 년 동안이나 풍영(諷詠)을 폐지하고 있었으며, ‘시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황계(詩荒戒)를 지니고 있었다.²⁰⁾ 또한 저술에 대해서도 “정주(程朱) 이후로 꼭 저술은 필요 없고, 책에 있는

18) 정은, 『桐溪集』 卷2, 序, 「玉溪盧先生文集序」, “吾東方名公碩士之以文章名世者何限 然求其所謂從心寫出. 如聖賢明理之文者 則亦不多得焉, 惟我玉溪先生之文 庶幾近之矣. 嘗聞朱夫子之言曰 有是實於中 則必有是文於外 試以此觀先生之文, 而溯求其所以出此之本源, 則蓋沈潛而敦厚 純粹而精明 無纖毫輕浮駁雜之氣間其中矣. … 則真可謂有德者言, 而程子所謂有是言則是理明 無是言則理闕焉者非耶.”

19) 정은, 『桐溪集』 卷2, 序, 「趙靜菴先生題蘭, 竹七絕後序」, “後之觀斯畫者 不以蘭視蘭, 而思先生馨香之德, 不以竹視竹, 而思先生清直之節, 不徒誦其詩 而思其所以事親事君脩己治人之道而有得焉, 則斯屏之有補於世教不其重乎.”

20) 이상필, 앞의 책, p.84 참조.

것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여 ‘정주후불필저술(程朱後不必著述)’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계는 남명의 이러한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저술에 대해서도 “공맹(孔孟) 이상은 공맹이 말하였고, 정주 이상은 정주가 말하였는데,……만약 논술하고자 한다면 정주 이후의 것은 괜찮을 것이다.”²¹⁾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에 따라서 동계의 문집에는 그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성리설(性理說)이나 예설(禮說)등에 관한 글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내용 위주의 것이 대부분이다.²²⁾ 따라서 그의 저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시는 그의 사상적 일면을 고찰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주목된다. 특히 제주유배시기의 한시는 그 분량과 내용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계는 42세(1610년) 때 출사한 이후로, 광해조에 대북과의 전횡을 막으려다 폄직(貶職), 유배 등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 집권세력들과 의견이 대립되었고 두 차례의 호란(胡亂)을 겪느라 안정된 환경에서 학문에 침잠(沈潛)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73세라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장수한 편이지만, 학문적인 저서를 저술하거나 전문적으로 제자를 교육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²³⁾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0년이라는 제주 유배기간동안 동계는 나름대로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으며 많은 한시와 다양한 글들을 남김으로써 학자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동계 정운의 제주유배한시 개관

동계 정운의 문집인 『동계집』은 두 차례 간행되었는데, 초간본은 저자의 손자 정기수(鄭岐壽)가 가정(家藏)의 초고(草稿)를 수집·편차하여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발문(跋文)과 용주(龍洲) 조경(趙綱)의 서문을 받아 1660년경에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시는 원집에 349제, 속집에 170제로 모두 519제(554수)가 남아 있다. 여운필은 그의

21) 정운, 『桐溪集』 年譜, “十三年庚辰. 先生七十二歲 在某里. 先生嘗舉南冥曹先生程, 朱以後不必著書之言. 而稱之曰. 此言乃高處孔. 孟以上 孔 孟言之. 程, 朱以上. 程, 朱言之. … 若欲論述, 則程 朱以後可也.”

22)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12.

23)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13.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들은 현전시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280제의 제주도 유배기의 작품들²⁴⁾이라고 하였다. 동계의 시에는 창작시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은데, 필자가 동계의 시의 내용과 문집에 배열된 시의 순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제주유배기의 시는 286²⁵⁾제이다.

286제의 동계 유배한시의 내용을 파악해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⁶⁾

<표 1>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 주제별 분류

연번	주제	내 용	작품수
①	‘지경(持敬)’을 드러낸 시	「밤에 앉아서」 외 11수	12수
②	‘서재생활(書齋生活)’을 드러낸 시	「밤에 송유(宋儒)의 잠명(箴銘)을 외우다」 외 9수	10수
③	‘사군자(四君子)’를 노래한 시	「마른 대나무가 다시 살아나다」 외 14수	15수
④	‘초사(楚辭)’를 인용한 시	「동짓달 그믐날」 외 5수	6수
⑤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드러낸 시	「생각 5수」 외 46수	47수
⑥	제주유배생활의 심경(心境)을 읊은 시	수령이 생포(生鮑)를 보내다」 외 101수	102수
⑦	애자지정(愛子之情)을 노래한 시	「아들을 기다리다」 외 7수	8수
⑧	향수(鄉愁)를 노래한 시	「새해 들어 몹시 추워서」 외 8수	9수
⑨	여정(旅程)의 상황을 읊은 시	「항해 중에 역풍(逆風)을 만나 어렵게 난포(蘭浦)에 도착하다」 외 5수	6수
⑩	만시(輓詩)	「반자명(潘子明)을 애도하다」 외 8수	9수
⑪	우정을 노래한 시	「성구(聖求)가 추로주(秋露酒)를 보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외 5수	6수
⑫	이별의 정서를 노래한 시	「시아(詩兒)를 이별한 후에 써서 주다. 2수(二首)」 외 13수	14수
⑬	기 타	「만월당(滿月堂)에 제영(題詠)을 부치다」 외 41수	42수
합계			286수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계는 제주유배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시를 남

24) 여운필, 앞의 논문, p.33.

25) 필자의 파악과 여운필의 파악이 대체로 일치해 동계 정은이 제주유배 기간에 쓴 한시는 대략 280제에서 286제로 보인다. 필자의 파악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창작시기의 미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필자는 동계가 「갑인봉사」로 인해 하옥(下獄)된 이후에 지은 시를 제주유배한시의 범주로 포함하였기에 여운필의 파악보다 다소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6) 한편의 시에 향수와 연군지정, 경의 수양 등 다양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되도록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와 맥락을 통해 파악하였음을 밝힌다.

긴다. 이 시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동계의 「도문일치(道文一致)」 문학관이 잘 드러난다. 대부분 시의 내용이 분명하고, ‘효제충신’의 마음과 선비정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주유배생활의 심경을 읊은 시들의 내용 역시 제주유배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로서 자신의 처지,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를 읽는 내내 그의 사상과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결국 동계의 시는 심미적인 문학적 가치보다는 현실주의적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이라 여겨진다.

동계 정은의 많은 제주 유배 한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①지경(持敬), ②서재생활, ③사군자를 드러낸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효제충신이나 애자지정, 만시, 심경을 읊은 시 등에서도 그의 선비정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시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논의의 폭을 한정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보다 분명한 교육적 논의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V.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를 통해 본 학문탐구 자세와 선비정신

1. 지경(持敬)을 위한 학문 수양

인간은 금수(禽獸)와 다르게 삶을 통해 목적의식을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종의 생명력이다. 그 핵심이 윤리 도덕이라는 인간관계의 질서이다. 경(敬)은 그 중심에 자리하는 삶의 자세이다. 유교의 선비들이 이 경의 태도를 자기 학문의 좌우명으로 삼은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일반적으로 성리학의 교육목적론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할 수 있다. 이 수기치인에서 수양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개념이 경(敬)이다. 경(敬)에 대한 개념은 선학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가 건전한 인격자인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먼저, 경(敬)으로써 몸을 닦는다. 다음으로, 몸을 닦아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27) 신창호(2013), 『유교의 교육학 체계』, 고려대학교출판부, p.105.

한다. 마지막으로, 내 몸을 올바르게 잘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²⁸⁾

맹자는 경(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善)을 펴고 바르지 못함(邪)을 끊는 그것을 경(敬)이라 말한다.”²⁹⁾ 또한 주자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만 경(敬)뿐이다.”³⁰⁾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역(周易)』에서는 “경(敬)으로써 안을 굳게 하고 의(義)로써 밖을 방정하게 한다.”는 경이직내(敬以直內)³¹⁾를 언급하고 있다.³²⁾

이러한 선현들의 입장을 조선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받아들였으며 조선 유교의 거봉(巨峰)인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역시 경(敬)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퇴계는 『경재잡도(敬齋箴圖)』에서 ‘경(敬)은 성학(聖學)의 처음이자 끝이 된다.’고 했으며 율곡도 『성학집요(聖學輯要)』 「수렴장(收斂章)」에서 ‘경(敬)은 성학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표명하였다.³³⁾

동계 역시 조선의 일반 유자들과 같이 경(敬)의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다음의 경연(經筵) 내용에서는 경(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릇 제사 지낼 때에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데, 이른바 경이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성학(聖學)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공부입니다. 제왕(帝王)의 학문으로부터 유사(儒士)에 이르기까지 경의 공부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경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주체가 없어서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사이에 자립할 수 없는 것이, 비유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는 가지와 잎이 뺏어 나가 무성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지기 경으로 내면을 굳게 하기를 집에 기둥이 있는 것과 같게 한 뒤에야 정령에 발휘되는 것이 모두 소종래(所從來)가 있을 것입니다.³⁴⁾

경(敬)은 성학의 처음이자 끝을 이루는 공부라는 그의 입장은 퇴계와 율곡의 경

28) 『論語』, 「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29) 『孟子』, 「離婁」上, “陳善閉邪 謂之敬”

30) 『心經附註』, 「正心章」, “攝心只是敬”

31) 『周易』, 「坤卦」, “敬以直內”

32) 서명석(2016), 「수양치료의 관점으로 본 퇴계심학 : 교육의 결락지를 찾아서」, 『교육사상연구』 30권 1호, pp.106-107 참조.

33) 신창호, 앞의 책, pp.105-106.

34) 정은, 『桐溪集』 年譜, 「入侍經筵」 “啓曰, 凡祭以敬爲主, 所謂敬者 非獨祭時爲然 實聖學成始成終之功. 自帝王之學 至於儒士 敬之工夫 皆不可無也. 不敬則此心無主 施諸政令之間 無以自立, 比如無根之木 枝葉不能暢茂. 須當敬以直內 如屋有柱 然後發於政令者 皆有所從來.”

(敬)에 대한 인식과 일치한다. 제왕으로부터 유사에 이르기까지 경(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이직내’를 인용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경(敬)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부(賦)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도달할 수 없을 듯하여 / 이전의 현인을 본받아 근본으로 삼아
야겠네
아득하고 아득하여 손을 댈 곳이 없나니 / 되돌려서 이를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리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으니 / 종지로다 성인이 가르치신 경이라는
글자여
마음을 수렴하여 몸속에 머물게 하니 / 이로써 본연의 성품을 함양하게 된다고
내 몸은 천지 사이에 쌀알처럼 작지만 / 어찌 참여하여 삼재가 된 까닭이 없으랴
오직 허령불매(虛靈不昧)한 한마음이 / 모든 일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 「경(敬)³⁵⁾」 부분

경(敬)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양론적 경지에 있어 본인은 도달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겸손함을 이야기한다. 위의 부에서 그는 마음을 수렴하여 본연지성을 함양하는 방법이 경(敬)임을 분명히 하면서 마음이 모든 일의 주재자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계는 남명학파의 일원으로서 남명의 ‘경의지학’을 충실하게 실천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동계의 삶 곳곳에서 보이는 그의 선비정신은 그러한 논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남명의 경의(敬義) 사상에서 안을 바르게 하는 것 혹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경(敬)이며, 밖을 바르게 하는 것 혹은 외적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의(義)라고 말할 수 있다. 남명은 이와 같은 경(敬)과 의(義)의 관계를 분리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경의협지(敬義夾持)라고 하여 경(敬)과 의(義)를 표리관계(表裏關係)로 설명하고 있다. 즉 경(敬)과 의(義)의 관계는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명은 검(劍)에 ‘내명자경(內明者敬)·외단자의(外斷者義)’라고 새겨서 내적으로 밝히는 경(敬)과 외적으로 결단력 있는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남명의 교육 방법론에서 ‘경(敬)으로써 내적 수양을 하고, 외적인 의(義)로 도를

35) 정은, 『桐溪集』續集 卷1, 賦, 「敬」. “曰余若將不及兮, 指前修而爲宗. 茫茫乎無所下手, 反而求之方寸中. 有一言可終身行之, 旨哉聖訓之敬字. 收厥心而宅中, 用涵養乎本地. 身稊米於兩間, 豈參三之無以. 惟一心之虛靈, 作主宰乎萬事.”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행해야 한다(修己以敬, 外義行道).’라고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³⁶⁾

그러한 맥락에서 남명사상은 실천력이 결여된 채 입으로만 고답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당대의 성리학풍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개인적 심성 수양의 단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실천의 의의를 더욱 강조하였다.³⁷⁾

동계는 이러한 남명의 ‘경의지학’에서 중시하는 사회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전쟁 때문에 무너진 강상윤리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왜란 직후의 활동, 폐모살제(廢母殺弟)에 강력히 저항했던 광해군 초반의 활동, 후금(後金)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력한 척화론을 제기했던 호란(胡亂)의 활동 등은 모두 적극적으로 의(義)를 실천한 결과이다.³⁸⁾ 특히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주유배는 그가 목숨을 걸고 충언(忠言)을 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척화의 주장과 함께 그의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실천한 결과였다.

동계의 제주유배는 그가 더 이상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동계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제주유배생활 동안에 계속하여 경(敬)을 수양하기 위해 애쓴다.³⁹⁾ 결국 ‘경의지학’은 선후(先後)의 관계나 분리(分離)의 관계이기 보다는 순환(循環)의 관계 또는 공존(共存)의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자기 수양은 치인(治人)을 펼치기 위한 체득이며 현실에서 어려운 고난에 처할 때나 은거할 때는 다시 수기(修己)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다음의 시는 제주유배기간 동안에 동계가 경(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했는지 잘 드러나는 시이다.

일찍이 마음속에 참 묘결을 얻자 했더니	曾謂求中眞妙訣
비로소 알았네 지경이 가장 긴요한 공부임을	始知持敬最要功
고요한 속에 직접 경험을 해 보면	若於靜裏親經驗
실제와 가상이 절로 같지 않더라	着實懸空自不同
- 「밤에 앉아서 ⁴⁰⁾ 」 전문	

36) 채취균(1996), 「南冥 敬義 思想의 教育的 意味」, 『教育哲學』 제14집, 한국교육철학회, p.255.

37) 이상필, 앞의 책, p.73.

38) 한명기(2001), 「桐溪 鄭蘊의 정치적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南冥學研究論叢』 제9집, 남명학연구회, p.471 참조.

39)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선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시열은 동계 정은의 유배 및 좌천기의 모습은 ‘온유돈후(溫柔敦厚)’·‘반구저기(反求諸己)’·‘인고세한(忍苦歲寒)’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수기(修己)와 관련된 덕목들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시열(2008), 앞의 논문.

동계는 지경(持敬)의 수양이 마음속에 참 묘결(妙訣)을 얻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동계의 유배 한시 중에는 ‘밤’에 읊은 시가 참으로 많다. 그것은 동계가 유배 중 불면증⁴¹⁾을 앓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야말로 고요함 속에 앉아서 깊이 있게 체득해야하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도 고요함 속에서의 지경(持敬)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자(程子)가 얘기한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정제엄숙(整齊嚴肅)등과 상통하며 이는 송대 성리학 이후 일반적 수양법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시 「밤에 앉아서」에서도 “한밤에 우두커니 앉았더니, 마음이 절로 밝아 지더라. 칠정은 원래 발하지 않았고, 온갖 상념 고요해서 일지 않으니. 동그란 거울에 새로운 빛이 빛나듯, 네모난 못에 담긴 고요한 물이 밝은 듯. 무엇으로 이 몸을 보전할 것인가, 경(敬)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이더라.⁴²⁾” 라고 말하고 있다. 칠정이 발하지 않음으로 인한 청허(淸虛)한 상태를 위한 수양을 위해 한밤에 우두커니 앉았었다. 그러면서 그는 거울에 빛나는 새로운 빛, 밝은 물의 상태와 같은 마음의 보전은 오직 지경(持敬)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경(敬)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시 역시 새벽에 일어나 지은 작품으로 청명한 새벽 기운을 받아 또렷해진 동계의 정신 세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닭이 울기 전에 잠에서 벌써 깨었건만	鷄未鳴時已罷眠
닭이 울자 일어나 앉으니 마음이 아득하구나	鷄鳴起坐意茫然
시비와 득실은 천년을 두고 있는 일	是非得失千年事
비태와 영허는 만고에 변치 않는 법이로다	否泰盈虛萬古天
밤 기운 청명하여 모름지기 낮을 경계하고	夜氣淸明須戒晝
마음 근원은 맑아서 깊은 못물 같아라	心源澄澈也如淵
- 「닭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앉아서 ⁴³⁾ 」 부분	

40) 정온, 『桐溪集』 卷1, 七言律詩, 「夜坐」.

41) 정온, 『桐溪集』 卷2, 書, 「答林樂翁問」, “그것은 대개 고고자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여 거울밤에도 뜯눈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 술기운을 얻고 나면 반드시 단잠을 자곤 한다. (蓋鼓鼓子夜不能寐 雖冬之夜 耿耿達朝者居多, 若得酒氣 必昏然酣睡.)

42) 정온, 『桐溪集』 卷1, 五言律詩, 「夜坐」, “夜半塊然坐, 心源自在淸. 七情元未發, 萬念寂無萌. 圓鏡新光洞, 方塘止水明. 何由保斯體, 持敬是工程.”

43) 정온, 『桐溪集』 卷1, 七言律詩, 「聞鷄起坐」

이 시에도 동계는 『맹자(孟子)』에 등장하는 야기설(夜氣說)을 통해 자기 수양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야기(夜氣)란 사물의 생장을 돕는 맑은 기운으로 한밤에 생겨난다. 맹자는 사람에게 있는 인의(仁義)의 마음이 자라도록 돕는 기운을 이 야기(夜氣)에 비유하면서 낮에 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⁴⁴⁾

정이천(程伊川)은 경(敬)의 경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敬)하면 저절로 허령(虛靈)한 상태에서 고요하게 되지만 허령(虛靈)한 상태에서 고요한 것은 경(敬)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이천은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지만 다만 엷매이고 쪼들려서는 안되며, 엷매이고 쪼들리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⁴⁵⁾ 이러한 설명은 성리학에서 경(敬)이라고 하는 것이 허령(虛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무념무상의 경지'나 노자(老子)에 있어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반대하여 무위자연'을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즉 경(敬)은 고요한 가운데서도 마땅한 바를 절실하게 추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노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모습은 동계의 시 「홀로 앉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유배중의 쓸쓸함을 기록하며 상념에 빠져있으면서 “빈 방은 쓸쓸하고 책상만 하나 있지만 책상에는 그래도 노자 순자와 같은 책이 없도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⁷⁾

한편 동계는 당시 제주에 유배 왔던 간옹 이익과 서곽(西郭) 송상인(宋象仁)과 시를 주고 받으며 교류하였다.

도서에 관한 말을 외우고 나니	誦罷圖書說
빈 뜰에 새벽달이 밝기도 하다	空庭曉月明
영대는 맑아서 어둡지 않은 법	靈臺澄不昧
텅 빈 방에 맑은 도심(道心)이 우리나라오리라	虛室湛生清
정할 때 성(性)을 기르는 것은 동할 때 잘하기 위함이요	養靜要酬動
심을 잡는 것은 정을 바르게 하려 함이라	持心欲正情

44) 정시열(2011), 앞의 논문. pp. 273-274.

45) 채휘균, 앞의 논문, p.257. 재인용.

46) 채휘균, 앞의 논문, p.257.

47) 정은, 『桐溪集』 卷1, 七言律詩, 「獨坐」, “異域光陰秋復春, 衰年疾病費吟呻. 居隣魍魅人誰過, 志在君親鬢欲新. 夜燭暗明羞晚學, 馬蹄霜雪幸全身. 空齋寥落惟書案, 案上猶無老與荀.”

아침과 낮에 양심(良心)을 해침이 없다면
천리가 호탕하게 유행하리라
- 「성구(聖求)와 형여(洞如)에게 차운하여 주다.48)」 전문

倘無朝晝牴
天理浩流行

위의 시에서도 동계는 단순히 안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심(道心)을 밝힐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동할 때 잘하기 위한 성(性)을 기르는 것은 남명의 ‘경의지학’과 일치하며 이는 곧 동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다. 경(敬)은 고요할 때나 사물에 접할 때를 막론하고 일관된 것이며, 정할 때는 알맞음으로 천하의 큰 근본이요, 동할 때는 사물과 조화로움으로써 천하의 뛰어난 도가 된다는 송나라 학자 채각현(蔡覺軒)의 설명과도 같은 의미라 하겠다.4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계 정운의 제주유배한시에는 그가 지경(持敬) 수양에 매진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배라는 억압된 환경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 도리(道理)의 문제와 같은 성리학적 개념 탐구에 대한 고민이었다.

동계는 조선조 일반 유자와 같이 은거(隱居)할 때는 지경(持敬)에 대해 깊이 탐독하였고, 출사(出仕)하였을 때에는 의리정신으로서 충간하여 군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남명을 계승하는 동계의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동계 스스로도 경(敬)에 대한 탐구와 인식의 깊이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진다.

후일 인조 반정 후에 예조 참판에 제수되자 물러나기를 청하는 다음의 소에 경의(敬義)에 대한 동계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하늘에 순응하려는 정성은 단지 천하의 마음속에 달렸을 뿐입니다. 진실로 경(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을 바르게 하여 조존(操存)하는 공부가 유독(幽獨)한 가운데 어둡지 않고, 성찰(省察)하는 뜻이 수응(酬應)할 때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밝게 하여 사욕에 가리워짐이 없고, 이 마음을 항상 경계하여 일예(逸豫)가 싹틈이 없게 하신다면, 천하의 마음은 위로 하늘에 통하고 천하의 덕은 위로 하늘과 부합되어 이미 생긴 재앙은 상서로

48) 정운, 『桐溪集』 卷1, 「五言律詩」, 「次寄聖求洞如」.

49) 채휘균, 앞의 논문, p.260 참조.

바뀌고 닥쳐올 변고는 복으로 녹아날 것입니다.⁵⁰⁾」

2. 서재(書齋)활동으로서 독서와 저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동계가 제주유배생활동안 지경(持敬)의 수양을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에는 여러 성현의 글들을 매일 새벽이나 고요한 밤에 자주 외면서 그 뜻을 되새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밤 기운이 청정하기에	夜氣方清淨
소리 높여 옛 잠명을 외웠네	高聲誦古箴
선현들 모습 눈에 선하고	先賢如在目
밝은 교훈 명심할 만하여라	明訓可銘心
마음은 항상 경 공부를 요하고	對越常要敬
연원은 단지 공경할 흠 자일세	淵源只是欽
침잠하여 세 번을 읽고 나니	沈潛三復了
빈방에 달빛 별빛이 찾아든다	虛室月星臨

- 「밤에 송유(宋儒)의 잠명(箴銘)을 외우다.⁵¹⁾」 전문

동계는 유배 올 때 많은 서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독서로써 일과를 삼을 수 있었다. 동계의 적거지에는 서실(書室)이 특별히 마련되었으며, 경사자집(經史子集) 수백 권의 책을 소장하고 독서하며 10년간의 유배생활을 견뎌나갔다.⁵²⁾ 동계의 제주유배한시에서도 독서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늘그막에 기나긴 행역으로	衰境長行役
기구하게 남북으로 떠도는 사람 되었네	崎嶇南北人
벼슬을 구하는 것은 곧은 성품을 해치고	干求傷直性
우려는 천성을 상하느니	憂慮損天真

50) 정은, 『桐溪集』 附錄 卷1,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鄭公諡狀. (趙綱)」.

51) 정은, 『桐溪集』 卷1, 五言律詩, 「夜頌宋儒箴銘」.

52) 정은, 『桐溪集』 年譜, “邑倅爲先生 作書室二間, 傍西籬前對橋林. 先生日處其中 經史子集累百卷閣之架上 十年之間, 循環觀覽. 大易則日誦一卦, 精究啓蒙. 夜深而寐 至曉初拂衣 端坐誦讀不輟.”

농한기 삼동 공부를 못하여	已失三冬業
끝내 진퇴의 구분에 어두웠네	終迷二柄掄
우리 속에는 다른 일이 없으니	籬中無外事
수시로 옛 책이나 보노라	時覘古編陳

- 「우연히 읊다⁵³⁾」 전문

기구하게 남북으로 떠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경성관관으로의 좌천과 제주유배를 말하고 있다. 벼슬에 집착하게 되면 곧은 성품을 해친다고 말하면서, 공부를 못하여 진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시로 옛 책을 보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위리안치라는 유배생활 속에서 오로지 독서로 일과를 삼았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밤에 일어나 책을 보다⁵⁴⁾」에서도 “해묵은 책을 펼쳐 득실을 엿보고, 세상살이 위험과 태평을 징험하노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계의 독서 활동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독서관 혹은 역사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경사체용(經史體用)」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사체용’은 “경은 체이고 사는 용이다.”, 즉 경은 진리 체계이며 이것이 실현된 게 역사라는, 따라서 학자는 역사를 읽으며 의리(진리)를 발견하고, 의리를 역사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사상에 의거해 동계는 경사자집 수백권을 계속 읽었던 것이다. 동계의 상소, 문집의 여러 글들에서 사서(史書)의 내용이나 인물을 인용함은 동계가 ‘경사체용’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동계의 독서활동은 당시에 제주에 유배된 다른 유배인들에게도 시사적이었던 모양이다. 「당시에 송상인, 이익도 또한 언사(言事)로 이곳으로 찬축되었는데, 송상인은 바둑을 배우고 이익은 금(琴)을 연주하였다. 선생이 독서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 물었는데, 선생이 답하는 시를 남겼다.⁵⁶⁾」

게으른 버릇 지금도 여전히 백수의 어린아이인데 懶習如今白首童

53) 정은, 『桐溪集』 卷1, 五言律詩, 「偶吟」.

54) 정은, 『桐溪集』 卷1, 五言律詩, 「夜坐觀書」, “短壁殘燈夜, 孤城細雨聲. 陳編窺得失, 世路驗危平. 老病南囚日, 君親北望情. 心中丹一斗. 鬢上白千莖.”

55) 오향녕(2011), 「역사를 읽는다. 경험과 성찰」,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pp.404-405 참조.

56) 정은, 『桐溪集』 年譜, “時宋象仁 李瀆 亦以言事被竄. 而宋象仁學棋, 李瀆彈琴. 聞先生讀書, 以書問之, 先生有謝詩云.”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누가 낭설을 전하여 그대 듣고 오해하게 하였나	誰傳浪說誤高聰
낙민과 관무를 비록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	洛閩關婺雖騰口
성정과 심신의 공부에 아직 착수하지 못했도오	情性心神未着功
기가 약하여 한낮 무렵에는 잠이 몰려들기 십상이고	氣弱午間眠易集
눈이 어두워 등불 아래에선 책을 궁구하기 어렵도다	眼昏燈下卷難窮
고인이 전적으로 일삼는 일 알고 싶어하니	故人欲問專治事
구법과 침서를 초록하는데 게을리 앓을 뿐	灸法鍼書抄未慵

동계는 자신을 어린아이로 낮추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를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 읽기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동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위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동계는 단순히 경사자집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내용의 글들을 초록하고 저술하였다.

그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신응경(神應經)』의 서문 내용이다. 동계는 제주유배생활 동안 『남양신응경(南陽神鷹經)』을 초록하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처방 요법을 기록하고서 서문을 지었다. 그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전을 공부하는 여가에 여력(餘力)으로 방서를 공부하여 몸의 병을 다스리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⁵⁷⁾ 이러한 측면은 남명의 제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실용주의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동계의 스승인 한강 정구 역시 이러한 저술을 남긴다. 정구는 읍지(邑誌)의 편찬을 중시했으며 『의안집방(醫眼集方)』, 『광사속집(廣嗣續集)』등의 의서(醫書)를 남긴다. 『의안집방』은 성천부사로 있을 때 자신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서에서 눈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은 것이고, 『광사속집』은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의서로서 유자목(兪子木)의 편집에 소루한 것이 많아 증보한 것이다. 이들 저술은 조식의 ‘궁리의 목적은 치용’이라는 생각과 일정한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⁵⁸⁾, 동계의 『신응경』 역시 치용(致用)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계는 「원조자경잠(元朝自警箴)⁵⁹⁾」을 짓고 “마음에 돌이켜 하늘이 부여한

57) 정은, 『桐溪集』 年譜, “作神應經序. 先生身多疾病. ……若於經傳之暇, 而餘事方書, 以治身病, 夫何傷哉.”

58) 이상필(2011), 「한강 정구의 학문성향과 문학」, 『남명학연구원총서』 제5집, 남명학연구원, pp.313-314 참조.

59) 정은, 『桐溪集』 年譜, “作元朝自警箴. 其序曰, 余今年忽五十矣. 追思四十九年之前處心行己之道. 多有可愧於心者. 夫子所謂四五十而無聞焉者, 非余之謂乎. 於是惕然反諸心, 思所以不負天之明命者, 而爲之箴以自警.”

밝은 명을 저버리지 않기를 생각하여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노라”라 밝히고 있다. 「만서편(漫書篇)⁶⁰⁾이라는 시에서는 『태극도설(太極圖說)』, 『동명서명(東銘西銘)』, 『사물잡(四勿箴)』, 『심경찬(心經贊)』, 『심잡(心箴)』, 『경재잡(敬齋箴)』, 「구상찬(九像贊)의 글」, 「굴원(屈原)의 글」, 『출사표(出師表)』등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 나이 오십이 되어 밝은 새벽이면 장엄히 외우노라.”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계의 저술활동은 남명학의 영향보다는 퇴계학의 영향으로 보는 측면이 크다 하겠다.⁶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는 실천뿐만 아니라 저술을 아주 중시했지만, 남명은 “정주(程朱) 이후로 꼭 저술은 필요 없고, 책에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했다. 동계는 이를 절충하여 정주 이후의 것은 논술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남명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고가 저술을 거의 중시하지 않았던 경상우도의 여타 일부 학자들과는 사고의 틀을 달리한 것이다.⁶²⁾ 이런 사고를 갖고서 동계는 절의(節義)를 생명처럼 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술도 중시하였다. 그래서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어 있는 동안에 경사(經史)를 섭렵하여 문왕(文王)에서 진덕수(眞德秀)에 이르기까지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바른 길을 잃지 않았던 인물 59명의 사행(事行)을 수집하여 『덕변록(德辨錄)』을 편찬하였다. 『덕변록』은 전해지지 않고, 「덕변록 서문」에 그 간행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상략)

내가 이 《덕변록》을 집성(集成)한 것 역시 환난에 대처하고 친한 자리에 거처하는 도리를 배워서 도(道)에 곤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궁벽한 고을에 서적(書籍)이 많지 않아서 널리 채집할 수 없고, 또 서로 강론하여 바로잡아서 산삭(刪削)을 가할 현명한 사우(師友)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감히 외인(外人)과 함께 볼 수 있겠는가. 단지 사적으로 보관해 두고서 스스로 반성하고자 할 뿐이다.»⁶³⁾

60) 정은, 『桐溪集』 年譜, “有漫書篇曰. 太極淵奧旨, 東西親切銘. 程門箴四勿, 眞氏贊心經. 蘭溪論心語, 晦翁主敬篇. 況此九像贊, 分明對聖賢. 靈均皎潔辭, 孔明忠貞表. 行年自知非, 莊誦每清曉. 除却疾病外, 咄唔常不休. 只要無過大, 安敢企前修.”

61) 위에서 언급한 한강 정구 역시 남명과 퇴계 양현(兩賢)의 학문을 탐독하였다. 이상필은 위의 논문에서 한강 정구가 비교적 많은 저술을 남긴 것은 퇴계 선생의 영향이며, 그럼에도 실용주의적 저술을 남긴 것은 남명 선생의 영향이라 분석하였다. 동계 역시 그러한 양현의 입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62)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p.11-12.

유배지에서 수많은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 수양의 한 방법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내용을 초록하여 자성서로 삼아 곤궁에 처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자성과 자경이란 곧 학문과 인간자아의 주체를 지키는 자세이자 그 기반이다. 이러한 독서 태도는 주자의 독서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주자는 어디까지나 독서를 제이적(第二義的)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이적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기 자신의 이(理)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에게 간절하게 체험하려는 것이니, 단지 글을 짓기 위해 보아서도 안 되고, 또한 무언가를 노려서도 안 된다.”,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현의 말씀을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하나 하나 몸으로 터득해야 한다.”, “독서는 다만 오로지 종이에서 이치와 의미를 구하지 않아야 하며 모름지기 돌이켜 자기 자신에 나아가 추론해 나가면서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⁶⁴⁾ 동계는 퇴계의 영향과 주자의 독서관을 이어 받으면서 제주유배생활 동안 많은 독서를 하였고, 「역양부군 행장(驪陽府君行狀)」, 「원조자경잡」, 「구중설(求中說)」, 「석곡 상사 성평년전(石谷成上舍彭年傳)」, 『덕변록』, 『신응경』, 「백령지후서(白翎誌後序)」, 「대정현동문위리기(大靜縣東門圍籬記)」, 「정찬보의 만월당에 대한 기문(鄭贊甫滿月堂記)」, 「죽장명 서문(竹杖銘 序文)」 등 많은 저술을 남기며 학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3. 사우(四友)를 통한 절의함양

동계의 제주유배한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주제는 사군자(四君子)를 인용한 시이다. 사군자란 매화(梅花), 난초(蘭草), 국화(菊花), 대나무(竹)를 일컫는 말이다. 선비에게 이상적인 인간형은 군자(君子)였다. 그래서 매·난·국·죽의 성품(性品)을 군자에 비유하여 사군자라 명명(命名)하여 회화(繪畵)나 시에 소재로 많이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즉, 매·난·국·죽은 모두 군자의 성품을 지닌 화초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난초는 깊은 산중에

63) 정은, 『桐溪集』 卷2, 序, 「德辨錄序」.

64) 노병성(2006), 「주자의 독서관에 관한 고찰」, 『韓國出版學研究』 제51호, 한국출판학회, p.143.

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린다.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핀다. 또한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한다. 이러한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군자, 즉 덕(德)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하여 사군자라 불렀다.

그런데 동계는 이들 매·난·국·죽의 사군자에서 난초를 제외하고 소나무를 더해 사우(四友)라 칭하였다. 즉,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를 심고 사우(四友)라 칭하여 이들을 보살피며 군자(君子)의 삶을 동경했다. 소나무는 대나무와 매화와 더불어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일컬어짐으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사군자와 다름 아니었다. 동계의 사우는 제주유배생활에서도 함께했는데 「연보」에서는 “배소의 울타리 안에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를 심고 사우(四友)라 하고, 때로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며 그 사이에서 읊조리며 시를 지었다.”⁶⁵⁾고 기록하고 있다.

매화를 길러서 찬 꽃술을 보련다	養梅見冷藥
소나무를 길러서 바람 소릴 들으련다	養松聞風聲
대나무를 길러서 맑은 그늘 덕을 보련다	養竹蔭清陰
국화를 길러서 떨어지는 꽃을 먹으련다	養菊餐落英
물어보자 어찌하면 기를 수 있는지를	問之何能養
가시나무를 잘라 주는 것이 제일이네	莫若剪榛荆
마음을 기르는 것도 어찌 이와 다르랴	養心何異此
먼저 사욕의 싹을 잘라야 하네	先除私欲萌
욕심을 제거하는 일이 어찌 그냥 될까	除欲豈徒爾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묘법이더라	妙法在惺惺

- 「한중잡영⁶⁶⁾」 전문

위의 시는 「한중잡영(閑中雜詠)」이라는 시로 『동계집』 1권에 수록된 오언배율의 시이다. 이 시에는 동계가 사우를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는 사우에 대한 지조와 절의를 숭모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것은 성성(惺惺)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즉, 참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욕심을 잘라내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을 어둡지 않게

65) 정은, 『桐溪集』 年譜, “籬中種松, 竹, 梅, 菊. 名之曰四友 有時曳筇逍遙. 吟哦於其間.”

66) 정은, 『桐溪集』 卷1, 五言排律, 「閑中雜詠」.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일깨우는 성성(惺惺)이 묘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송대(宋代)의 사상채(謝上蔡)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⁶⁷⁾

이러한 모습은 남명이 경(敬)의 수양과 실천을 위해 차고 다닌 방울인 성성자(惺惺子)를 떠올리게 한다. 남명은 동강(東岡)에게 성성자를 전하면서 “이것은 성성자(惺惺子)인데, 맑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고 반성하게 하니, 차고 다니면 매우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소중한 보배를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는 이를 잘 보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⁶⁸⁾ 이와 같은 의미로 동계는 유배지 울타리의 사우를 통해 마음을 경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성성자’를 대신한 것은 아닌가 한다.

공중에 우뚝 솟은 나무야	磊落層空幹
위태롭게도 절벽에다 뿌리를 박았구나	孤危峻壁根
천둥 번개는 비록 잠시일지라도	雷霆雖暫霹
뼈마디엔 문득 근력이 돋았어라	骨節却生筋
명당의 기둥으로 비의할 바 아니거니	未擬明堂棟
장인의 도끼질을 우려할 것이 있으랴	何憂匠石斤
가장 어여쁜 것은 가지에 앉은 학이	最憐枝上鶴
깃을 씻으며 맑은 하늘의 흰 구름을 부르는 것이로다	刷羽叫晴雲

- 「낙락장송⁶⁹⁾」 전문

위 시에서 동계는 자신의 상황과 소나무를 동일시하고 있다. 유배된 자신의 처지와 절벽에 뿌리박힌 소나무를 동일시하며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근력을 키우는 동력이 된다. 절벽에 뿌리 박혀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명당의 기둥보다도 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장인의 도끼질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학이라는 상관물이 상징하는 것은 맑은 하늘과 같은 ‘도학정신’이다. 동계가 유배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보여주는 시이며, 그의 의리와 절개, 그리고 도학정신이 잘 드러난 시라고 여겨진다. 다음은 사우 중 대나무와 관련된 시이다.

67) 『心經附主』卷1, 「敬是常惺惺法」.

68) 이상필, 앞의 책, p.81.

69) 정은, 『桐溪集』卷1, 五言律詩, 「長松」.

창 앞에다 대나무를 옮겨 심은 뜻은	移竹當窓種
눈 속에 푸른 줄기를 보기 위함이라	要看雪裏莖
흙이 새로워 가지가 잠시 야위었지만	土新枝斃悴
적응력이 좋아 움이 다시 트는고야	天定葉初萌
비를 맞고 나서 갈수록 생기가 돌고	得雨添生色
바람이 불면 짐차 소리도 나는구나	逢風漸有聲
줄기 하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干霄孤幹在
술한 날들을 그렇게 잘도 자라겠지	從此日崢嶸

- 「마른 대나무가 다시 살아나다.70)」 전문

대나무를 배경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물의 특질, 즉 대나무의 특질을 들어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나무를 심고 바라보는 것은 세한고절(歲寒孤節)이라는 대나무의 속성을 통해 선비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71) 지금 동계가 처한 모습이 이러한 ‘세한’의 모습이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는 적응력이 좋아 움트는 대나무의 모습과 술한 날들을 그렇게 자라나는 자연물의 속성을 토로하고 있다. 동계 역시 세한의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견뎌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매화를 노래한 시를 살펴보자.

등걸이 묵어서 떨어지고 절반은 가지가 없다	老查皴落半無枝
차디찬 꽃술은 성글어도 눈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태	寒蕊稀疎傲雪姿
꿈을 깨고 보니 오경인데 창에는 달이 밝아라	夢破五更窓有月
어른거리는 맑은 그림자가 내 맘에 꼭 드는구나	婆娑清影最相宜

- 「그림 속의 매화72)」 전문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사군자 중에 난초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 하여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 성품을 말한다. 국화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 하여 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고고하게 피는 절개를 상징한다. 이에 비해 매화는 아치고절(雅致高節)이라 하여 우아한 풍치와 고상한 절개를 의미한다.73) 위의 시에서도 매화의 이러한 속성을 엿볼 수 있다. 추운 눈 속에서도 꽃술은

70) 정운, 『桐溪集』 卷1, 五言律詩, 「枯竹還生」.

71) 문복희(2015), 「敬菴 곽한소의 생애와 문학세계 연구」,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p.182.

72) 정운, 『桐溪集』 卷1, 七言絕句, 「畫梅」.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동계는 매화의 고결(孤潔)하고 청고(淸苦)한 자태를 닮아가기를 소망한다. 긴 겨울의 환경 속을 헤쳐나오는 매화의 속성, 그리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고결하고 청고한 매화의 자태, 이러한 모습은 유배라는 추위 속에서도 선비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자 했던 동계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사우를 그저 식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동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다소 길지만 전문을 다 살펴보고자 한다.

내게 울타리 가의 국화가 있어/바다 건너 섬에서 굳게 맹세하였네
아침저녁으로 엄숙히 마주 보니/ 사랑스러우면서도 설만히 할 수 없어라
바람이 부니 늦은 향기는 멀리 퍼지고/ 달이 비추니 차가운 빛이 매섭다
이슬이 서리 되는 계절이런가/ 천지가 온통 쓸렁한 기운일세
손이 찾아와 누런 꽃을 보더니만/ 꺾이기 쉽다고 애석해하면서
날더러 시령을 가로지른 후에/ 띠풀로 눈바람을 막으라 하네
찬찬한 자태가 남아 있어야만/ 피곤함을 위로할 수도 있구나
듣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난다/ 그리움에 너와 또 이별이라니
사물이란 정해진 분수가 있고/ 영화 쇠락은 운수의 갈음이라
서리에 물건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은 재앙이라 지적했네
더구나 가을 들어 꽃이 피어서/ 입동 넘어 아직도 청초함에라
서리의 위력은 경외할 만한데/ 어찌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나
덧개를 씌워 잠시 흠친 영화는/ 저도 기뻐하는 바가 아니리라
직접 닦쳐도 낙심하지 않는데/ 지엽따윈 어찌 망설일 것인가
한 번의 실행이 없을 수 없어/ 그 일을 바로 순식간에 하였네
혹시나 내 벗의 수치될까 싶어/ 장차 끊고 도로 거들까 하노라
손을 배웅하여 돌려보내고는/ 꽃잎을 따니 마음이 산란하다
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너의 절개를 사랑하노라
꽃 아끼려다 절개를 상할까 봐/ 너의 천성을 보존토록 두노라
성쇠를 조화에다 돌려 버리니/ 심기가 양쪽 다 흠결이 없어라
명년 봄에 우로가 적서 주면은/ 생기를 띠고 새싹이 돌아날 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옛 색깔 응당 퇴색되지 않으리
그래서 나는 덕으로 사랑하여/ 구차한 말일랑은 하지 않고서
시들지 않은 꽃잎을 따다가는/ 그저 탁주에다 띄워 마시노라
- 「손님이 나더러 시령을 만들어서 국화(菊花)를 덧기를 권하기에, 시를 지어 사

73) 문복희, 앞의 논문, p.183.

레하다.⁷⁴⁾ 전문

위의 시에서 동계는 잠깐 동안 흠친 영화(儵榮)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화의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의 절개를 사랑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동계의 삶을 관통한 선비정신이자 의리정신으로서 동계는 국화를 통해 자신의 도(道)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시라기 보다는 자신의 다짐을 적어낸 또 다른 자성서라 불릴만한 내용이다. 이처럼 동계는 제주 유배생활동안 사우를 통해 지경(持敬)의 자세를 유지했으며, 사우의 지조와 절개를 자신과 동일시 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는 동인(動因)으로 삼았다.

이러한 동계의 끈은 절의와 절개는 굴림서원에 제주 오현으로 배향됨으로서 숭모(崇慕)되었고, 동계의 적거지였던 대정에는 동계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세워진다. 이 사당은 1843년(헌종 9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가 「송죽서원(松竹書院)」이라는 현판을 써서 걸어주는데, 송죽서원의 이름은 동계의 시⁷⁵⁾에서 취하였다고 한다.⁷⁶⁾ 이때는 동계의 적거지였던 대정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유배중이었는데, 송죽서원의 제액을 추사가 썼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추사가 동계를 경모(敬慕)하였다는 것이다. 추사의 시 「우연의 짓다」에는 “송죽의 굳은 절개는 동쪽 문의 사당에서 기리는 구나.⁷⁷⁾”라고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사는 유배가 끝난 후 동계 고택을 방문하여 ‘충신당(忠信堂)’이라는 현판을 적어주었는데 동계 정은 선생의 높은 학덕과 절의와 끈은 품성을 칭송하는 제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귀양에서 돌아와 이 현판을 써 주었다고 전하고 있다.⁷⁸⁾

74) 정은, 『桐溪集』 卷1, 五言排律, 「客有勸我作架覆菊. 謝以詩」. “我有籬邊菊 貞盟海外結. 朝夕儼相對 可愛不可褻. 風聞晚香遠 月照寒色烈. 于時露爲霜 乾坤氣凜冽. 客來看金英 惜其易摧折. 勸我作橫架 茅以蔽風雪. 留得粲粲姿 庶可慰疲繭. 聞言忽唏噓 所懷與爾別. 凡物有定分 榮衰遞運迭. 殞霜物不死 古人指爲孽. 況茲秋開花 入冬尙明潔. 天霜威可畏 豈堪終抗載. 蔭物暫儵榮 必非渠所悅. 當看不落心 枝葉何足屑. 豈無一信行 課役在瞬瞥. 恐作我友羞 將爲斷還撤. 揮謝客言歸 掇英心悒悒. 我非愛爾花 我實愛爾節. 惜花懼壞節 任爾保天拙. 盛衰歸造化 心期兩無缺. 明春有雨露 生意更抽蘖. 直待秋風高 舊色應不涅. 故我愛以德 不爲苟且設. 但摘未衰蕊 泛我濁醪啜.”

75) 1624년(인조2)에 제주 목사로 떠나는 성안의(成安義)에게 준 시를 말한다. 이 시는 『동계집』 제1권에 「증별제주목사성안의(贈別濟州牧使成安義)」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6) 정은, 『桐溪集』 續集 卷3, 附錄, 「松竹書院記(李源祚)」

77) 김정희, 『阮堂全集』 卷9, 詩, 「偶作」, 「松竹勁節東門祠」

78) 충신당 동계정은 고택 홈페이지 참조. <http://www.jungon.co.kr/jungon/html/sub0101.html>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동계의 제주유배한시에는 그의 학문적 태도 혹은 사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계의 제주유배한시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경(持敬)의 태도를 견지하여 끊임없이 수기(修己) 하였던 모습, 둘째 학문에 침잠(沈潛)하고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였던 모습, 셋째 사우(四友)를 통해 자기반성과 지조·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계의 모습은 조선조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거나 안주하여 본래 추구하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계는 한 평생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간 참된 조선의 선비였다. 제주유배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수양과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한 그의 모습에서 많은 본보기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학파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큰 스승이 없었다. 그렇기에 제주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제주오현은 그 의미가 남다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오현 중 동계 정은과 충암(沖庵) 김정(金淨) 그리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등 세 명이 유배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조선시대 제주의 교학질서에서 유배인이 갖는 교육적 함의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충암 김정, 추사 김정희, 면암 최익현 등 제주에서 직접 제자를 가르친 유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지(執贄) 형식의 사제관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사상적 가치였다.

조선시대 서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존현(尊賢)과 강학(講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양대 축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강학의 공간은 앎을 우선시하는 도문학(道問學)의 세계를 표상하며 도문학의 일차적인 관심은 객관 세계의 사물의 이치에 대한 공부에 있다. 이에 비하여 제향 공간은 마음을 중시하는 존덕성(尊德性)의 영역을 지시하고 있다. 존덕성과 도문학의 동시적인 실현이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가의 근본 이념이다.⁷⁹⁾ 이러한 이유로 서원배향은 단순히

79) 정순우(1998),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화역사』 53, 한국사학회 학회, p.43 참조.

그 인물을 기리고 추송하는 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는 사액서원(賜額書院)은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 것으로서 문묘(文廟)보다 한 등급 낮은 정도의 위치(位次)를 지니고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의 성립과 발전양상을 볼 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계의 제주 굴림서원 배향은 교육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를 교육학적으로 분석한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의 모든 한시를 다루지 못한 점과 동계의 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거나 추가적인 기초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동계의 제주유배한시가 그의 학문태도와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치 있는 교육학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계의 제주유배생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들은 제주 유림들에게 모델링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동계가 제주의 굴림서원과 송죽서원 등에 배향된 이유는 그가 평생 동안 보여준 의리정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숭모와 함께 제주에서 보여준 학문적 태도와 선비정신의 모습도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이 양자(兩者)가 합해져 제주 굴림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제주 유림의 사표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동계 정온의 교육사상이 제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제주오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 서원에 배향된 향사(享祀)인물들은 사상적 영향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제주오현의 사상적 영향연관에 대한 연구나, 그들이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친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료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제주오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자료

『論語』

『桐溪集』

『孟子』

『心經附註』

『阮堂全集』

『周易』

『國譯 桐溪 鄭蘊 文集』(鄭蘊; 민족문화추진회 譯註, 2006, 한국학술정보)

2. 단행본

노인숙(2002), 『면암 최익현 한시 연구』, 국학자료원.

신창호(2013), 『유교의 교육학 체계』, 고려대학교출판부.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오향녕(2011), 「역사를 읽는다. 경험과 성찰」,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이상필(2005),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3. 논문

고은순(2015), 「桐溪 鄭蘊의 歷史認識과 詩世界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정우(1986),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병성(2006), 「주자의 독서관에 관한 고찰」, 『韓國出版學研究』 통권 제51호, 한국출판학회.

문복희(2015), 「敬菴 곽한소의 생애와 문학세계 연구」,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부영근(2006),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동아인문학』 10호. 동아인문학회.

서명석(2016), 「수양치료의 관점으로 본 퇴계심학 : 교육의 결락지를 찾아서」, 『교육사상연구』 30권 1호.

송희준(2014), 「桐溪 鄭蘊의 학통과 학문사상」, 『嶺南學』 제26권, 경북대학교 영남문

《교육사학연구》 제26집 제1호(2016. 05.)

화연구원.

양진건(1988), 「濟州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_____ (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_____ (2010), 「桐溪 鄭蘊 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여운필(2005), 「桐溪 鄭蘊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이상필(2011), 「한강 정구의 학문성향과 문학」, 『남명학연구원총서』 제5집, 남명학연구원.

정순우(1998),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화역사』 53집, 한국사회사학회.

정시열(2008),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41권, 한국사상문화학회.

_____ (2011),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 孤立無援의 絶域에서 구현한 儒家之敎의 表象」, 『한국고전연구』 2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정영식(2010), 「桐溪 鄭蘊의 文學世界-直道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일균(2002), 「조선시대 거창지역(안음현)의 학통과 사상- 갈천 임훈과 동계 정운의 학문론을 중심으로」, 『동방학문학』, 동방학문학회.

채휘균(1996), 「南冥 敬義 思想의 敎育的 意味」, 『敎育哲學』 제14집, 한국교육철학회.

한명기(2001), 「桐溪 鄭蘊의 정치적 행적과 그 역사적 의의」, 『南冥學研究論叢』 제9집, 남명학연구회.

4. 기타

충신당 동계정은 고택 홈페이지. <http://www.jungon.co.kr/jungon/html/sub0101.html>

<Abstracts>

The Study on Academic Attitude and Seon-bee Spirit in Donggye Jeong On's Jeju Exile Poems

Kang Dong Ho · Yang Jin Ge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data for examining local education of Joseon Dynasty is very limited, and it is true that Jeju is worse than any other areas. In this respect, Jeju exiles' documents are very preciou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academic attitudes and Seon-bee spirit in Jeju exile poems of Donggye Jeong On who is worshipped as one of the Jeju "Five Sages". Donggye left behind 280 works for 10-year Jeju exile. Those 280 works are important data to know his ideas, thoughts, and lifestyle, because Donggye's literary point of view accepts point of Munijae.

This study examined Donggye's academic attitude and Seon-bee spirit by selecting a few topics. This study could check a few aspects which are constant self-development by prospecting attitude of 'Jigyung', withdraw to academy and striving for studying and writing, and self-reflection through Sawoo and integrity.

Donggye's academic attitude and Seon-bee spirit with real intellectuals' typical aspects in Josun dynasty became an opportunity to show the reason why he is held in respect as a guiding person of Jeju's education based on Songjuk seowon, and Gyulim seowon which is the only Saek seowon in Jeju.

Key words : Donggye Jeong On, Jeju exile poem, Gyulim Seowon, the Jeju "Five Sages", Seon-bee Spirit

§ 논문 투고 : 2016. 04. 15.

§ 심사 시작 : 2016. 04. 25.

§ 게재 결정 : 2016. 05. 15.